

기름값 소폭 꺾였지만 물가 부담 여전

7월 제주 소비자물가 2.9% 상승… 전달보다 오름폭은 둔화
항공료·휘발유·경유와 고등어 등 일부 수산물이 상승 주도

중동전쟁 여파로 급등한 석유류 가격 영향으로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던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 들어 다소 둔화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상승폭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고등어 등 일부 수산물 가격도 강세를 이어가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

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4일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7월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상승했다. 지난 4월 2.6% 상승한 데 이어 5월에는 3.3%, 6월에는 3.4%까지 오름폭이 확대됐으나 7월에는 2.9%로 상승세가 다소 진정됐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상승했다. 고등어가 26.1% 올랐고, 갈치

(32.3%)와 쌀(10.6%)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공업제품은 석유류를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유는 20.8%, 휘발유 12.0%, 등유는 30.1% 각각 상승했다. 다만 지난 6월 상승률인 경유 30.2%, 휘발유 19.8%, 등유 36.1%와 비교하면 오름폭은 다소 둔화했다. 공공서비스 요금 중에서는 항공료에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 인상 영향으로 국제항공료가 21.7%, 외래진료비가 2.0%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요금 중에서는 보험서비스료가 13.4%, 국내항공료가 16.9% 각각 올랐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아 소비자들이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체감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상승해 6월(3.3%)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신선식품지수도 4.3% 올라 6월(7.2%)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지출 목적별로는 기름값 상승 영향으로 교통비가 9.0%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락·문화비는 컴퓨터(25.1%)와 해외단체 여행비(20.0%) 상승 영향으로 4.2% 올랐다. 음식·숙박비는 쇠고기(외식·18.4%)와 해장국(5.1%) 등을 중심으로 오르면서 2.6% 상승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형 스마트팜 평가회 농협, 농업인 20명 대상 30시간 과정으로 운영 스마트팜 보급 기반 마련

제주농협이 추진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제주형 스마트팜 모델 보급사업이 실제 농가의 스마트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농협은 제주의 기후와 지형, 재배 작목 특성에 최적화된 자립형 스마트팜 모델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지난 6월 26일부터 추진한 ‘제주형 스마트팜 보급사업’ 평가회를 지난달 31일 농협제주본부 회의실에서 열고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 청년농업인 아카데미 수료자가 개발한 가성비 스마트팜 모델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선도 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총 30시간 과정으로 운영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팜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 실습을 함께 진행해 참여 농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초고가·비거주주택 증부세 인상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스마트 환경제어 장비를 실제 농장에 적용한 사례 발표에서는 작물 생육 개선과 노동력 절감, 데이터 기반 영농 실현 등 스마트팜 도입 효과가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업 참여 농가들은 스마트팜 운영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장비 개선 방안, 마케팅 활용 방안, 제주

도의 사업비 지원을 통한 사업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에 참여한 김효준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스마트팜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 스스로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만큼 앞으로

농장 경영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농협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육성한 농·축협별 스마트팜 전도자를 활용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팜 교육과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 제주형 스마트팜 보급 확산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수출 급증

6월까지 130t·232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 뛰어넘어

제주산 축산물 수출이 한우와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주도는 6월 말 기준 제주 축산물 수출 실적이 130.3t, 231만8000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 실적(67.2t, 131만5000달러)을 넘어섰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축산물 수출액이다. 제주산은 전국 냉장 쇠고기 수출액의 33.9%, 돼지고기 수출액의 97.2%를 각각 차지했다. 제주도는 축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지난 5월 민관 협의를 거쳐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 제주산 축산물 수출협의체 구성,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 수출용 도축물량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안에 싱가포르 수출작업장 1~2곳을 추가로 등록하기 위해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관리인증기준(HACCP) 조사·평가에 필요한 현장·서류 검토를 지원

하고, 싱가포르식품청 승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제주도는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를 싱가포르에 수출할 수 있는 수출작업장 3곳이 싱가포르식품청(SFA)에 추가 등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에 합의한 후 수출작업장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이번에도 추가 등록된 축산물 가공장 혼다축산과 제주드림포크는 한우·돼지고기 수출작업장으로, 삼다는 돼지고기 수출작업장이다. 이에 따라 도내 싱가포르 수출작업장은 기존 6곳에서 총 9곳으로 늘었다. 이번 등록은 싱가포르식품청이 직접 현지 실사를 하는 기존 방식 대신,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에서 작업장을 심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싱가포르식품청에 추천하는 ‘선등록(Pre-listing)’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기존 현지 실사 방식보다 신속하게 등록 절차가 이뤄졌다. 문미숙기자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 6개사 선정

사경센터-한국마사회 추진
지원 대상 기존 4곳서 확대
로컬 디저트 상품화도 추진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6개 기업을 심사를 거쳐 선정, 성장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한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은 제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비즈니스모델 고도화를 돕는 대표적인 상

생 지원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기업들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기존 4개사에서 6개사로 확대, 더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 시즌7’에는 ▷(주)간세 ▷데일리스트디커피동조합 ▷주식회사 디오위드 ▷주식회사 인스피어 ▷주식회사 파란공장이 선정됐다. 또 ‘로컬브랜드 디저트 상품화 지원사업’에는 유한회사 섬이다가 선정돼 각각 사업개발비와 1대 1 맞춤형 컨설팅, 홍보 등 기업 맞춤형 스케일업 사업이 추진된다. 문미숙기자

서귀포시정소식

2026년 서귀포시 사랑의 결혼식 참여자 모집 알림

○ 신청기간 : 2026. 7. 27.(월) ~ 8. 21.(금)
○ 신청대상 : 서귀포시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혼인신고를 했으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사실혼 제외)
○ 예식일시 : 2026. 10. 29.(목) 11:00
○ 장 소 : 서귀포 소재 웨딩홀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064-760-2443)

2026년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스타트업타운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 알림

○ 모집기간 : ~ 2026. 8. 18.(화) 11:00
○ 모집대상
-스타트업베이: 39세 이하 초기(예비)창업자
-스타트업타운: 창업 3년 초과~7년 이내의 도약기 스타트업
○ 모집규모 : 입주기업 각 2팀
○ 입주기간 : 2026. 8. 28. ~ 12. 31.
○ 지원 및 혜택 : 입주공간 및 편의시설, 단계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홈페이지) 접수
○문의사항 :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 064-732-0049)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 064-739-0110)

2026년 감귤유통지도요원 모집 알림

○ 접수기간 : 2026. 8. 3.(월) ~ 8. 12.(수)
○ 채용인원 : 14명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만 19세 이상으로 감귤 유통 지도 활동에 제약이 없는 자, 운전면허증 소지 및 운전 가능한 자 등
○ 주요업무 : 서귀포시 관내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사한, 출하신고 이행여부, 상품과 감귤 유통지도 및 단체, 고품질 감귤 출하 시책 추진 등
○ 근무기간 : 2026. 9. 7.(월) ~ 12. 31.(목) / 주 5일, 1일 8시간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do2345@korea.kr) 접수
○ 접수 및 문의 :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 064-760-2723)

감귤 신제품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히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명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중지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감귤묘목·포드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히라베니와세
● 금굴 ● 하굴(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로 ● 제라본

※ 포트묘목

생존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굴 / 오히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중지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씨니트묘목분양

★ 만감류

- 씨니트 -한라봉 2년 -카라 2년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자처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중지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